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문 선 영
선문대학교

〈요 약〉

대한민국 교육계는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학교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이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양 교과목의 하나인 ‘종교학’과 인성교육의 연계성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어떻게 인성교육과 연계되며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이 연계되는 교과 내용의 핵심은 종교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차원의 교훈들과 관련이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은 이러한 점을 도덕적 삶, 타인을 위하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개인의 이기적인 성향을 벗고 바람직한 타인과의 관계를 지향해 나가는 측면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종교 이해를 통하여 다(多)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또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이 국가 수준의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인성교육 관련 방법과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 종교교육 수업시간에 수반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종교학’ 교과교육이 도덕과 교과교육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주제어: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통일교, 종교교육, 인성, 인성교육

I. 시작하며

2015년 1월 20일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계가 이러한 목적을 지닌 인성교육진흥법을 모두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학교에서 친구가 경쟁자가 되어야 하며, 학생이 부모, 교사와 대화 나눌 시간이 부족한 학교 교육의 현실과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근본 문제 해결을 기본적으로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¹⁾ 또한 법으로 인성을 개념화함으로써 인간의 “인격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²⁾ 그 뿐만 아니라 현행 학교 교육기관 외 별도의 인성 전문가 양성기관 운영으로 인한 인성교육 외주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³⁾

더 나아가 인성교육이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무엇이 사람의 성품이며, 바람직한 사람의 성품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⁴⁾ 따라서 인성교육의 개념은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이 아니라 인성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정규교육과정의 비정상화와 왜곡”이라고 진단한다.⁵⁾ 다시 말하자면 인성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공교육의 정상화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학교 교육과정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간을 지향하는 차원이 인성교육에 전제된다면, 그 인성교육은 분명 특정한 별도의 교과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3년 기본연구과제 보고서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⁷⁾은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음악과, 미술과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구

1) 우리교육 편집부, 「진단도 처방도 터무니없는 인성교육진흥법」, 『우리교육』 가을호 (서울: 우리교육, 2015), 24-25쪽.

2) 김승환,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인성 파괴 촉진법-법으로 살피는 인성교육진흥법」, 『우리교육』 가을호 (서울: 우리교육, 2015), 65쪽.

3) 김길순,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서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468-469쪽, 475쪽 참조.

4) 권재원, 「공교육의 정상화가 곧 인성 교육이다-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실패한 모델」, 『우리교육』 가을호 (서울: 우리교육, 2015), 38쪽.

5) 위의 글, 46-47쪽.

6) 한국교육학회,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1998), 12쪽.

현을 위한 방안이 연구되었다. 이는 인성교육 자체가 특정 교과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한 단발성 차원이 아니며, 다양한 학교 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별개의 특별한 프로그램 중심의 인성교육의 방향은 현재의 교과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무관하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인성교육을 위한 특별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이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⁸⁾

그렇다면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양 교과의 하나인 ‘종교학’과 인성교육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종교교육은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인가: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주제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필자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종교교육’의 개념을 국가의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면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⁹⁾ 중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교교육이 어떻게 인성교육과 연계되며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인성(人性) 이해

1. 인간의 마음과 성품

인성교육에서 인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동안 국내에서 논의된 인성의 개념은 “성품 혹은 품성, 기질, 개성, 성격, 사람됨, 전인성, 인격, 도덕성 등”¹⁰⁾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인성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란 용어는 도덕교육이나 인격교육이라는 말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¹⁾ 이와 같이 인성의

7) 양정실 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참조.

8) 박종덕,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인성교육은 가능하고 필요한가?」, 『도덕교육연구』 제26권 1호 (춘천: 한국도덕교육학회, 2014), 182쪽.

9) 세칭 통일교 혹은 통일교회로 불리어지는 종단의 현재 공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이다.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로 출발한 종단의 명칭은 1997년 4월 10일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으로 변경되었다. 종단의 명칭이 학계에서는 통일교 혹은 통일교회로 불리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종단 내부 연구자들도 그 동안 명칭 사용에 대하여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종단의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종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공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10)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과주: 교육과학사, 2015), 69쪽. 국내의 인성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핵심은 같은 책 70쪽의 도표를 참조할 것.

11) 박선영, 「인격의 구조와 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8), 14쪽.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것은 “동양과 서양의 인간 이해의 지평이 다르고, 좁게는 각 학자들이 인성에 접근하는 철학적·종교적·문화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¹²⁾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 성품’이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인간의 내면, 성품이 ‘건전하다’, ‘올바르다’는’ 수식어를 통하여 가치지향적인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인성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종단에서 출판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관련 문헌들¹³⁾을 검토해 본 결과, 직접적으로 ‘인성’이란 용어를 통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인성 자체가 인간의 외면(外面)이 아닌 내면(內面)이라는 차원에서 인성과 관련된 몇 가지 용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심(本心)’,¹⁴⁾ 인간의 ‘본성(本性)’,¹⁵⁾ 인간의 ‘천성(天性)’,¹⁶⁾ 인간의 ‘성품(性品)’,¹⁷⁾ 인간의 ‘심성(心性)’¹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용어들의 일부는 인간의 본래의 마음과 성품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인간의 본래의 마음과 성품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의 발로”¹⁹⁾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는 선을 추구하게 하는 마음과 성품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본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악의 욕망을 일으키는 인간의 ‘사심(邪心)’을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은 ‘본심’과 ‘사심’으로 인하여 선의 욕망과 악의 욕망이 갈등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한다.²⁰⁾

한편 선한 본심과 악한 사심에 의하여 갈등하게 되는 인간의 내면은 ‘창조본성(創造本性)’²¹⁾과 ‘타락성본성(墮落性本性)’으로 대별되어 설명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인간이 유일신의 신성(神性)을 지닌 자녀로 창조되어졌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창조본성은

12) 장승희,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본질과 인성교육의 방향-행복담론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37집 (부산: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84쪽.

13) 『문선명선생말씀선집』을 비롯하여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1);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문선명 선생의 교육철학』 (서울: 성화출판사, 2002);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天聖經』 (서울: 성화출판사, 2013);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平和經』 (서울: 성화출판사, 2013);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참父母經』 (서울: 성화출판사, 2015) 등이 이에 해당된다.

14)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원리강론』, 1쪽, 69쪽.

15) 위의 책, 1쪽, 477쪽.

16) 위의 책, 13쪽.

17) 위의 책, 95쪽.

18)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0권 (서울: 성화사, 1986), 254쪽.

19)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원리강론』, 1-2쪽.

20) 위의 책, 2-3쪽.

21) 위의 책, 95쪽.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성의 본질적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조본성은 선을 지향하는 “창조본연의 심성(心性)”을 뜻한다.²²⁾ 이와 달리 타락성본성은 유일신의 신성과는 무관하며 인간 시조(始祖)의 타락으로 인하여 후대 인간에게 계승되어 내재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타락성본성은 인간이 악을 지향하게 되는 성품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²³⁾ 결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선한 창조본성이 신성으로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인하여 유일신의 신성과는 무관한 악한 타락성본성도 현존하는 인간에게 동시에 내재되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본성, 곧 창조본연의 심성은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창조본성은 개인 스스로 내재된 타락성본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감으로써 발현된다. 이러한 창조본성을 지닌 인간의 성품은 부모가 자식에게 악을, 스승이 제자에게 불의를 행하게 하지 않으며,²⁴⁾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희생시킬 수 없게 된다고 본다.²⁵⁾ 인간이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타락성본성은 교만, 시기, 혈기, 거짓 등을 예로 들고 있다.²⁶⁾ 요약하자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에게 있는 본심과 사심의 두 마음과 창조본성과 타락성본성의 두 성품을 말함으로써 타락성본성을 극복하고 창조본성만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으로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을 지향하고 있다.

2. 창조본성의 핵심과 관계 지향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창조본성으로서의 신성을 개인이 완성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개성완성’²⁷⁾ 혹은 ‘인격완성’²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타락성본성을 벗고 온전하게 창조본성을 회복하여 인격을 완성한 인간은 범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본다.²⁹⁾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러한 창조본성을 지닌 인간의 개별적 존재의 측면을 고려할 때, ‘개성진리체(個性真理體)’라는 개념을 통하여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특성을 말한다.³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창조본성의 핵심을 ‘심정(心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는 유일신이 지닌 신성의 핵심이 바로 심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2)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권 (서울: 성화사, 1984), 123쪽.

2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99쪽.

24) 위의 책, 1-2쪽.

25) 위의 책, 13쪽.

26)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50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2), 127쪽.

2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46쪽.

28)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64권 (서울: 성화사, 1988), 137쪽.

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110-111쪽.

30)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169쪽.

유일신의 신성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심정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신의 본질적 차원을 의미한다.³¹⁾ 즉 심정은 유일신이 사랑의 대상을 갈망하여, 인간의 창조를 피할 수 없게 만든 참된 사랑으로 충만한 신성의 측면을 일컫는다. 따라서 유일신에 의한 인간의 창조는 이러한 심정이 동기가 되어졌다고 보며, 이를 창조의 “심정동기설”이라고 말한다.³²⁾ 비유하자면, 부모가 자신들을 닮은 자녀를 갈망하는 사랑의 마음의 원천이 심정이라는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와 같은 신성의 핵심인 심정이 인간의 창조본성의 핵심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참된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성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은 “애적 인간”(愛的人間; Homo amans)임이 강조되고 있다.³³⁾ 한편 이러한 사랑의 원천인 심정은 ‘창조본연의 인간의 지(知), 정(情), 의(意)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됨으로써, 지적 활동인 학문 분야, 정적 활동인 예술분야, 의적 활동인 규범분야의 총화인 인간의 문화는 궁극적으로 참된 사랑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랑의 문화 곧 심정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³⁴⁾

이와 같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심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 사랑의 원천으로 특수화함으로써,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관계 지향성을 지닌 신의 창조본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요청하기 때문에 참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창조본성은 관계 지향성의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이러한 인간의 관계적 존재의 측면을 ‘연체(聯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³⁵⁾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관계 지향성이 함의된 창조본성을 지닌 인간 이해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 인식으로 확대하고 있다.³⁶⁾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조본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 삶의 기본 터전인 가정을 참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³⁷⁾ 즉 가정은 인간이 조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등을 배우고 경험해 나가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이해된다.³⁸⁾ 다시 말하자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창조본성의 회복을 통하여 애적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이해하는 인성교육은 바로 이러한 애적 인간의 모습을 회복케 하는 교육적 측면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신앙고백이

31) 위의 책, 58쪽.

32) 위의 책, 59쪽.

33) 위의 책, 235쪽.

34) 위의 책, 62-63쪽.

35)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185쪽 참조.

3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61-62쪽 참조.

3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선생의 교육철학』, 122-132쪽 참조.

3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495-500쪽 참조.

라고 할 수 있는 ‘가정맹세’(Family Pledge)를 살펴보면, 이러한 애적 인간의 이상적 모습은 가정에서는 효자 효녀의 삶, 세계에서는 성인의 삶으로 제시되고 있다.³⁹⁾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그 관계를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확대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핵심 가치·덕목인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은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인간의 관계성 인식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적 존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인성교육은 이를 위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삶이 전제되며, 이기적인 인간의 삶을 지양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의 이러한 인성교육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이해하는 선한 창조본성을 지닌 애적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차원으로서의 인성교육과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Ⅲ.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립학교⁴⁰⁾의 건학이념은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이다. 건학이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이해하는 인성에서 창조본성을 지닌 애적 인간의 심정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정작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불효나 불의 또는 부정부패와 같은 부도덕성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운영하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은 그 사랑의 대상을 크게 천(天), 인(人), 국(國)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첫째, 애천은 하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 애인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 애국은 세계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다. 애천에서 말하는 하늘은 한국

39) 문선영, 「가정맹세를 통해 본 통일교 신앙의 정체성」, 『통일신학연구』 제16집 (아산: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2009) 참조.

4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학교법인인 선문학원, 청심학원이 있다. 학교법인 선문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선화유치원(서울 광진구 소재), 경북초등학교(서울 광진구 소재), 선화예술학교(서울 광진구 소재), 선화예술고등학교(서울 광진구 소재), 선정중학교(서울 은평구 소재), 선정고등학교(서울 은평구 소재), 선정관광고등학교(서울 은평구 소재), 선문대학교(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소재)가 있다. 학교법인 청심학원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경기 가평군 소재),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경기 가평군 소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문학원의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민족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심성을 반영하며, 경천사상의 뜻이 함의된 것으로 해석되고, 애인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애천에서 말하는 하늘은 특정한 종교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해 온 궁극적인 실재를 말하며 이러한 애천은 진리 탐구를 통한 인격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애천의 삶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 도덕을 준수하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⁴¹⁾ 애인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만 그 기본 전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애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다”⁴²⁾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존엄성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애인의 삶은 부모가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참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듯, 타인을 위하는 삶을 통하여 참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⁴³⁾ 애국은 자신의 나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대가족이라는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인류의 평화 세계를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애국은 애천과 애인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이러한 평화 세계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일컫는다.⁴⁴⁾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운영하는 학교는 “초·중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참사랑의 문화, 심정문화세계 건설에 이바지할 심정적인 인격자, 규범적인 세계시민, 창의력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인 양성에 존재 가치”를 두고 있다.⁴⁵⁾ 이러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특별히 선문대학의 중등학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한” 정직, “양심에 기초하여 몸과 마음가짐이 순수하고 깨끗한” 순결, “무슨 일에 임하던지 누구를 대하던지 태도가 정답고 따뜻한” 친절, “이타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 사회,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⁴⁶⁾

2.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연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의 선(善)을 지향하는 본심에 의하여 “선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방편”으로 탄생된 것이 종교며,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선을 지향하는 목적을 함의한다고 본다.⁴⁷⁾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41) 선문대학교 교목실 편,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4), 3-18쪽 참조.

42) 위의 책, 19쪽.

43) 위의 책, 21쪽.

44) 위의 책, 26쪽.

45) 선화예술학교 홈페이지(<http://www.sunhwaarts.com>) 학교안내의 이사장 인사말 참조.

46) 선정중학교 홈페이지(<http://www.sunjung.ms.kr>) 학교소개 학교상징의 교훈 참조. 이러한 교훈은 선정고등학교, 선정관광고등학교,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각 홈페이지 학교소개 학교상징의 교훈에서 소개되고 있다.

4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10쪽.

하여도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本心) 만은 누구나 공통하게 가지고 있다.”⁴⁸⁾고 전제하며, 역사 속에서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본심을 일깨웠다고 이해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다양한 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창조본성을 회복케 하는 유일신의 섭리적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다(多)종교에 대한 배움을 중단 내부에서도 수용하고 있다.⁴⁹⁾ 현재 중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 중심의 종교교육은 이러한 종교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이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서 배워나가는 다양한 종교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사료된다.⁵⁰⁾

현재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2007 개정 종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정된 것이며 2011년부터 사용되고 있다.⁵¹⁾ 당시 교육과정에서는 특정종교에 대한 사상과 전통을 다루도록 영역이 구성되어진 관계로 교과서의 후반부 내용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교과 내용의 각 단원과 세부항목은 아래의 <표 1>, <표 2>와 같다.⁵²⁾

〈표 1〉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중학교 생활과 종교』 2	『중학교 생활과 종교』 3
Ⅰ. 인간과 종교 1. 나는 누구인가 2. 종교와의 만남 3. 삶과 믿음 4. 착한 성품의 성장	Ⅰ. 종교의 바른 이해 1. 종교란 무엇인가 2. 종교적 이상의 실현 3. 종교와 과학	Ⅰ. 종교 현상의 이해 1. 여러 가지 인생 문제 2.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3. 경전의 의미와 이해
Ⅱ. 현대 사회와 종교 1. 현대 사회의 이해 2. 현대 사회의 청소년 3. 현대 사회와 종교의 역할 4. 이념과 종교	Ⅱ. 세계의 종교와 문화 1. 유교 2. 불교 3. 기독교 4. 이슬람교 5. 힌두교	Ⅱ. 종교의 특징과 공통점 1.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 2. 궁극적 실재 3. 도덕과 양심 4. 남을 위하는 삶
Ⅲ. 한국의 종교와 문화 1. 전통적 민간 신앙	Ⅲ. 종교 공동체와 종교 간의 대화 1. 종교 공동체	Ⅲ. 종교적 삶과 가치관 1. 전통 종교의 삶과 실천

48) 위의 책, 116쪽.

49) 문선영, 「다문화사회와 통일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78-82쪽 참조.

50) 이재일, 「통일교 중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220쪽.

51) 이재일, 「통일교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120쪽.

5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2, 3 (서울: 성화출판사, 201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서울: 성화출판사, 2010) 참조.

2. 외래 종교의 한국적 수용 3. 한국의 신종교 4. 신종교의 새 시대 도래 사상	2. 서로 다른 종교들 3. 종교 간의 대화 4. 종교 간의 화해와 협력	2.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3. 올바른 종교적 삶 4. 가정과 종교교육
Ⅳ. 하나님과 세계 1. 살아계신 하나님 2. 하나님을 닮은 세계 3. 주교받는 세계 4. 인간에게 주신 축복	Ⅳ. 하나님이 찾아오신 길 1. 아담 가정을 찾아오신 하나님 2. 의인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3.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4.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Ⅳ. 성서와 역사 해석 1. 역사를 보는 눈 2. 하나님의 구원섭리 3. 역사와 종말사상 4.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Ⅴ. 하나님을 떠난 사람 1. 두 마음을 가진 사람 2. 인간 조상의 타락 3. 악의 근원 4. 죄의 뿌리	Ⅴ. 그리스도와 나 1. 종교적 구원과 새로운 탄생 2.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 3. 예수는 누구인가 4. 고난과 성취	Ⅴ. 하나님의 뜻으로 본 역사 1. 역사의 반복 2. 하나님의 구원역사 3. 다시 오시는 예수님

〈표 2〉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Ⅰ. 인간과 종교 1. 궁극적 물음과 문제 2. 종교와의 만남 3. 삶과 믿음 4. 종교의 의미와 역할	Ⅱ. 종교현상의 이해 1. 여러 가지 인생 문제 2.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3. 경전의 의미와 해석 4. 종교 의례와 규범	Ⅲ.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경전의 정신 1.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 2. 궁극적 실재 3. 양심과 도덕적 삶 4. 남을 위하는 삶
Ⅳ.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1. 다양한 인간관 2. 종교적 인간관 3. 종교적 자연관 4. 종교와 과학의 관계	Ⅴ. 세계의 종교와 문화 1. 유교 2. 도교 3. 불교 4. 기독교 5. 이슬람교 6. 힌두교	Ⅵ. 한국의 종교와 문화 1. 전통적 민간신앙 2. 외래 종교의 한국적 수용 3. 한국의 신종교 4. 신종교의 새 시대 도래 사상
Ⅶ. 종교 공동체의 이해 1.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2. 종교의 기능 3.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4. 종교적 인격 형성	Ⅷ.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1. 하나님의 세계 2. 인간을 중심한 두 세계 3. 원죄란 무엇인가 4. 타락의 과정과 결과	Ⅸ. 하나님의 구원섭리와 역사 1.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구원섭리 2.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섭리 3. 역사의 반복과 하나님의 섭리 4. 메시아와 한민족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사회에서 “종교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태도”⁵³⁾를 기르도록 다양한 종교의 이해를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인도에 있는 바하이교의 연꽃 사원을 통하여 “종교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나의

5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9], 92쪽.

실례”가 소개되기도 한다.⁵⁴⁾ 교과 내용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중학교 생활과 종교』 3, ‘Ⅱ. 종교의 특징과 공통점’,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Ⅲ.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경전의 정신’이라는 단원의 세부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은 교과 내용에서 종교의 다양성과 더불어 종교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그 공통점을 크게 도덕적 삶, 타인을 위한 삶으로 이해하며, 종교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을 지향하는 모든 종교의 본질적 차원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은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차원의 가르침과 실천 규범들을 통하여 선을 지향하는 종교의 공통적인 가치와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인성교육과 연계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삶은 반드시 종교적 삶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삶은 결코 도덕적 삶과 분리될 수 없다. 특별히 종교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등으로 표명되는 관계 지향적인 이타적 인간의 모습을 이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다양한 종교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의 다양성과 더불어 종교의 가치지향적인 선의 요소를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것은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이 연계되는 교과 내용의 핵심은 무엇보다 각 종교가 지향하는 도덕적 차원의 교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은 이러한 점을 도덕적 삶, 타인을 위한 삶의 실천을 통하여 이기주의를 벗고 바람직한 타인과의 관계를 지향해 나가는 측면을 강조한다. 더불어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서 다양한 종교 이해를 통하여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협한 생각”⁵⁵⁾에서 벗어나 다(多)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나갈 수 있는 교과 내용 또한 인성교육과 연계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사례

필자는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이 연계되는 이러한 교과 내용이 어떻게 종교교육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수업 사례에 대한 자료 협조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하여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5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203쪽.

5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9], 93쪽.

1) 도덕적 삶에 관한 사례

어느 교사는 특별히 유교에 관한 수업에서 도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가 지닌 도덕적 삶의 차원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간탐구 대기화 5부작 ‘아이의 사생활’은 제1부 남과 여, 제2부 도덕성, 제3부 자아존중감, 제4부 다중지능, 제5부 나는 누구인가로 구성되어 있다.⁵⁶⁾ 특별히 수업시간에 활용되고 있는 내용은 제2부 도덕성이다. 제2부 도덕성은 도덕성과 인생관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덕지수와 행복지수가 비례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도덕성 관련 일부 실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은 EBS 방송 작가로부터 인터뷰에 대한 사례비로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례비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15만원으로 알고 전달해주려고 할 때, 대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실험과 스포츠교실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규칙을 어겨야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은 규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관찰하는 도덕성 관련 실험이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자신의 부정직함이 타인에게 드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교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자신이 실천하지 못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도덕적 삶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 교사들은 유교의 효에 대한 가르침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어느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언제 생각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게 되는 귀한 존재가 부모님임을 깨닫게 한다. 한편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임을 공감하게 한다.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는 왜 날 낳았어?”,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냐!”, “확 죽어버릴 꺼야!”, “나 아빠 딸인 거 싫거든” 등과 같은 말로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각하게 한다. 교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아왔던 학생들에게 선천적 장애로 인하여 말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이 원하는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완주 등에 참가한 위대한 아버지 덕 호잇의 실화⁵⁷⁾를 담은 동영상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이 위대함을 일깨우며,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편지를 통하여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교과서에 제시된 “효에 대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야기 나누어 보기,⁵⁸⁾ “유교의 네 가지 덕목과 불교의 오계와 같이 항상

56) 방송된 내용은 DVD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EBS 제작팀,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2009) 참조.

57) 샘 닐, *It's only a mountain: Dick and Rick Hoyt, men of iron*, 김일용 옮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서울: 코리아무비테크, 2006) 참조.

58)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2, 25쪽.

지켜야 할 덕목을 만들어 발표”하기,⁵⁹⁾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나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기,⁶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⁶¹⁾ 등과 같은 연구문제들은 학생들이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 도덕적 삶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인도한다.

2) 타인을 위한 삶에 관한 사례

어느 교사는 다양한 종교에서 발견되는 타인을 위한 삶, 곧 이타적인 삶⁶²⁾을 학생들이 실천하는 것은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선행을 다루는 영화를 활용하기도 한다.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 Forward)는 2000년 미국에서 제작되고, 2001년 국내에 개봉된 작품이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사회 과목 담당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기는 과제’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트레버’라는 학생은 한 사람이 3명의 사람에게 도움주기를 실천하고, 도움을 받은 3명의 사람은 각각 3명의 사람에게 도움주기를 실천함으로써 연속적인 도움주기의 여파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진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사는 이 영화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작성하게 한다. 우선 교사가 먼저 자신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전함으로써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를 통해서 공유하며, 학생 스스로 최고의 도움주기 왕을 선발하게 한다. 교사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선행의 가치를 학생들이 깨닫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교과서에 제시된 “남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학생들 상호 간에 이야기 나누기,⁶³⁾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행위”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 모색하기,⁶⁴⁾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이웃을 돌

59)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3, 53쪽.

60) 위의 책, 65쪽.

61) 위의 책, 91쪽.

62) 종교인의 이타적인 삶은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활동,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가 소개되고 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44-45쪽.

어느 교사는 1999년 1월 15일에 방영된 MBC 스페셜 ‘내 인생의 모든 것-수도원 24시’를 통하여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수도원 수사들이 가난과 청빈,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한다.

6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12쪽.

64) 위의 책, 37쪽.

보는 사람들”의 예를 찾아보기,⁶⁵⁾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하기,⁶⁶⁾ “남을 위한 삶을 실천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칭찬하기,⁶⁷⁾ “서로 조화하고 상응하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누기⁶⁸⁾ 등과 같은 연구문제들은 학생들이 인간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임을 공감하고, 종교가 지니고 있는 이타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며 실천해 나가도록 인도한다.

3) 종교 간의 존중과 배려에 관한 사례

어느 교사는 이슬람교에 관한 수업을 통해서 특정 종교에 관한 선입견과 편견의 사례를 발견하도록 시도하며, 이를 위하여 ‘내 이름은 칸’(My Name is Khan)이라는 영화를 활용한다. 청소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교수·학습법으로 시청각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내 이름은 칸’이란 영화는 2010년 인도에서 제작되었으며, 2011년 국내 개봉된 작품으로 이슬람교 신앙을 하는 무슬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영화는 9·11 이슬람교 원리주의자의 자살폭탄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칸은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는 편견을 벗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자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칸은 홍수 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누구보다 헌신하며 봉사하게 된다. 이러한 칸의 모습을 통하여 성숙한 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는 이 영화를 감상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소감문 가운데 “나는 00교인인데 지금까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를 통해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고 앞으로 다른 종교 사람들도 내 종교를 사랑하듯이 그들의 종교들도 인정해 줄 것이다.”와 같은 내용을 적은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교사는 잘 작성된 학생의 소감문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생 가운데 자신이 느끼지 못한 것을 다른 학생의 소감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워나가게 한다.

더 나아가 교사는 자신이 직접 이태원 이슬람교 사원 근처에 있는 전통의상 가게에서 구입한 히잡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여학생이 직접 착용해 보도록 시도한다. 교사는 이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익숙하지 않은 이슬람교의 문화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이러한 모습을 기념사진을 통해서 추억할 수 있게 한다.

65) 위의 책, 91쪽.

6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2, 31쪽.

6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3, 43쪽.

68) 위의 책, 60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교과서에 제시된 “내가 다른 사람의 종교를 대하는 태도”를 성찰해 보기,⁶⁹⁾ “우리 주변에서 종교 간에 협력할 ‘공동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찾아보기,⁷⁰⁾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⁷¹⁾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기,⁷²⁾ “우리가 다양한 종교를 대할 때 지녀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기,⁷³⁾ 이웃 종교에 대하여 오해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발표해 보기,⁷⁴⁾ “공동의 선을 위한 종교 간의 협력 운동의 사례” 찾아보기⁷⁵⁾ 등과 같은 연구문제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태도를 지니도록 인도한다.

IV.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1.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의 연계성 재고

필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도 교과서 개발에 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개정판 교과서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개정 고시된 교과 교육과정은 ‘종교학’으로 교과 명칭이 바뀌었고, 특정 종교가 아닌 개별 종교로 일부 영역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할지라도 곧 바로 교육과정이 개정됨으로써 교과서를 무력하게 할 위험”⁷⁶⁾의 일부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학교 종교교육에서 교과서 개발에 기준이 되고 있는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이 2015년 9월 또 다시 개정되어 고시되었다. 현행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되도록 내용 체계를 표로 구성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9)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18쪽.

70) 위의 책, 57쪽.

7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2, 52쪽.

72) 위의 책, 57쪽.

7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65쪽.

74) 위의 책, 194쪽.

75) 같은 책.

76) 김귀성·류성민·고시용, 『종교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121-122쪽.

〈표 3〉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종교학’ 영역과 내용	2015년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종교학’ 영역과 핵심개념
(1) 인간과 종교 ·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 해결 · 종교의 의미와 역할	(1) 인간과 종교 · 종교의 의미 · 종교의 역할 · 종교 자유와 통념
(2) 종교 현상의 이해 · 종교적 세계관의 이해 · 종교 경전의 이해 · 종교 의례의 이해 · 종교 공동체의 이해	(2) 종교의 구성 · 경전과 교리 · 종교 의례 · 종교 공동체
(3)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 종교적 차이의 맥락 · 종교적 태도의 다양성 ·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 세속 사회와 종교	(3) 종교의 세계관 · 종교의 인간관 · 종교의 역사관 · 종교의 자연관
(4) 종교적 인간관, 사회관, 자연관 · 종교적 인간관 · 종교의 사회적 기능 · 종교적 자연관	(4)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 세계의 종교 · 한국의 종교 ·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5) 세계의 종교와 문화 · 동양 종교의 이해 · 서양 종교의 이해 · 기타 종교의 이해	(5) 현대사회와 종교 · 종교와 다종교사회 · 종교와 인권 · 종교와 생명·과학 · 종교와 다문화사회
(6) 한국의 종교와 문화 · 한국 고유 종교의 이해 · 한국 전통 종교의 이해 · 한국 근현대 종교의 이해	(6) 개별 종교들의 이해 · 주요 교리와 규범 · 사회·문화적 실천 · 종교인의 삶과 태도
(7) 개별 종교들의 이해 · 경전과 교리 · 종교 생활 · 사회적·문화적 역할 · 나의 종교관 점검	

현행 교육과정과 구별된 내용 체계의 큰 차이점은 첫째, 종교 자유를 직접적으로 주요하게 다루며,⁷⁷⁾ 둘째, 다양한 종교 관련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도 다루어지는 부분이

7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61-62쪽 참조.

다.78) 안내되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는 “종교 자유 관련 내용을 교육할 때 법원의 판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충분히 제시하고, 종교의 자유와 그 이외의 자유(양심, 사상, 학문, 예술, 언론의 자유 등) 사이의 점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79) 이러한 내용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말함으로써 다양한 종교인의 인권 존중을 말할 수도 있지만, 선택 과목인 ‘종교학’ 교과를 선택하지 않아야 할 권리가 조장될 수도 있는 역효과를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학’ 교과에서 종교의 자유 외에 다양한 자유의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지도 고려되는 부분이다. 교과 내용의 영역은 6영역으로 축소되었지만 실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이 국가 수준의 종교교육 범위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필자는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 곧 교과와 성격과 목표,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는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이 종교에 대한 배움을 통하여 종교 문화를 성찰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종교에 대한 배움을 통하여 인간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그 가능성이 전망된다.

2. 다양한 인성교육 관련 방법과 자료의 활용

현재 교육계는 인성교육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80) 첫째,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은 ‘나의 다짐’, ‘우리들의 약속’, ‘행동 강령’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점검표를 제작하여 기본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은 수련회를 통한 극기 훈련, 예절실, 생활관을 통한 기본 예절교육, 예절 신문 만들기, 가족 신문 만들기, 부모님 발 씻겨 드리기, 효 일기 쓰기, 불우 이웃에 대한 봉사 등을 진행한다. 셋째, ‘내면화를 통한’ 인성교육은 명상의 시간, 좋은 예화 자료집을 활용한다. 넷째, ‘자율성을 제고’하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친교 활동, 학급회의를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반성하는 민주 시민의 과정 훈련을 추진한다. 다섯째, ‘성취감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은 학급 소집단 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감 고취 및 소집단 활동록 쓰기, 모둠 일기 쓰기를 통한 친교활동을 통하여 소외된 학생들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의 방법적 측면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

78) 위의 책, 65-67쪽 참조.

79) 위의 책, 69쪽.

80) 이흥진 외, 『靑少年人性教育 叢論』 (인천: 도서출판 진영사, 2015), 185-187쪽 참조.

교육 수업에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응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예를 들자면 선행일기를 쓰는 형태로 자신의 내면과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덕목의 실천 점검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글 쓰는 게 싫다”, “숙제를 내주어 스트레스를 준다”⁸¹⁾와 같은 학생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가능한 수업시간에 진행되도록 유념할 부분도 있다.

한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서 일부 교사들은 불교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때, 명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명상은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수업시간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담당 교사들마다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자료들이 담당 교사 상호 간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 수준의 인성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은 있지만 인성교육 측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소중히 인식하면서도 인간과 인간의 상호 관계적 측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면 좋을 것이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⁸²⁾라는 책은 사랑과 감사의 힘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물의 결정 사진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시사한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시청각 매체’⁸³⁾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료는 관련된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유발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이 어떻게 인성교육과 연계되며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우선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이 국가 수준의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종교학’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과 다양한 인성교

81) 김귀성·류성민·고시용, 앞의 책, 110쪽.

82) 에모토 마사루, *MIZU WA KOTAE WO SHITTEIRU*, 양역관 옮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서울: 나무심는사람, 2003); 에모토 마사루, *MIZU WA KOTAE WO SHITTEIRU 2*, 양역관 옮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서울: 나무심는사람, 2003) 참조. 2003년 12월 17일 KBS1 수요기획 ‘물에 관한 특이한 보고서’에서 책의 내용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2008년 더난출판이 저작권 계약을 맺고 새롭게 번역한 책도 있다.

83) 김귀성·류성민·고시용, 앞의 책, 109쪽.

육 관련 방법과 자료의 활용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 종교교육 수업 시간에 수반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종교학’ 교과교육이 도덕과 교과교육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필자는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라는 점을 재인식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종교에 대한 배움은 종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성숙한 종교인의 모습이 요청된다. 현재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모두 종교인이다. 학생들이 종교인 교사의 언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종교교육의 측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의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이 연계되는 차원에서 이는 비단 종교교육 담당 교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먼저 교육자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인성교육이 그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식의 전달과 습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인성교육의 필요조건이지 결코 충분조건이 아니다. 특히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데는 살아있는 모범적 인간이 끼치는 ‘직접적 감화(感化)’가 지식의 습득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훈도하는 교육자의 ‘감화력(感化力)있는 태도’가 절실히 요망된다.

감화력을 발휘해야 하는 교육자로서는 ‘책무의식(責務意識)’이 투철해야 하고, 스스로 ‘자기수양(自己修養)에 의한 인격 교양’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임은 더할 나위 없다. 교육자의 직무는 수양을 해야 하는 점에서 ‘헌신(獻身)’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성직(聖職)’이라고 할만하다.⁸⁴⁾

84) 윤사순, 「인성교육의 유학적 전통과 그 과제」, 『철학과 현실』 겨울호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2013), 253쪽.

참고문헌

- 강선보 외, 『인성교육』, 파주: 양서원, 2008.
-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2.
- 교육부, 『인성지수 개발연구』, 서울: 진한엠앤비, 2014.
- 김귀성·류성민·고시용, 『종교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김길순,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서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 김영, 「인권교육의 시각에서 인성교육, 깨달음과 바뀔 그리고 희망 바라보기」, 『인간연구』 제28호, 부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
- 김민수, 「‘인성교육’ 담론에서 인성 개념의 근거」,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4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남궁달화,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1999.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권, 서울: 성화사, 1984.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0권, 서울: 성화사, 1986.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64권, 서울: 성화사, 1988.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50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2.
- 문선영, 「가정맹세를 통해 본 통일교 신앙의 정체성」, 『통일신학연구』 제16집, 아산: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2009.
- 문선영, 「다문화사회와 통일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박범주, 『인격함양의 도덕교육』,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2.
-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I,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6.
- 박종덕,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인성교육은 가능하고 필요한가?」, 『도덕교육연구』 제26권 1호, 춘천: 한국도덕교육학회, 2014.
- 서명석, 『교육의 무한계도 이탈』, 용인: 책인숲, 2015.
-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世界經典』, 서울: 국제종교재단출판국, 1994.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생활과 종교』 1, 2, 3, 서울: 성화출판사, 2010.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서울: 성화출판사, 2010.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1.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선생의 교육철학』, 서울: 성화출판사, 2002.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天聖經』,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平和經』,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父母經』, 서울: 성화출판사, 2015.
- 선문대학교 교목실 편,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4.
- 송선영, 『인성, 윤리적 삶과 종교』, 서울: 소통과 공감, 2015.
- 송선영,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윤리적 삶의 이해와 도덕교육』, 서울: 도서출판 소통과 공감, 2015.

- Alan Harris, *Teaching Morality and Religion*, 정현숙 역, 『도덕교육과 종교교육』, 서울: 집문당, 1993.
- 양정실 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 에모토 마사루, *MIZU WA KOTAE WO SHITTEIRU*, 양역관 옮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서울: 나무심는사람, 2003.
- 에모토 마사루, *MIZU WA KOTAE WO SHITTEIRU 2*, 양역관 옮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 서울: 나무심는사람, 2003.
- 우영호, 『쉽게 풀어 쓴 인성교육과 직업윤리』, 서울: 동문사, 2015.
- 윌리엄 데이몬, *Bringing in New Era in character Education*, 김태훈·박찬석·서강식·이범웅 옮김, 『새로운 시대의 인격교육』,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8.
- 윤사순, 「인성교육의 유학적 전통과 그 과제」, 『철학과 현실』 겨울호,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2013.
- 이재일,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이재일, 「통일교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 이흥진 외, 『靑少年人性教育 叢論』, 인천: 도서출판 진영사, 2015.
- 장승희,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본질과 인성교육의 방향-행복담론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37집, 부산: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 정인경 외, 『행복강사들의 행복한 인성교육』, 대전: 웰빙라이프 출판사, 2015.
-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2015.
- 존 티한, *In the name of god*, 박희태 옮김, 『신의 이름으로: 종교 폭력의 진화적 기원』, 서울: 이음, 2011.
- 주건성, 『인성은 미래다』, 서울: 도서출판 인성학, 2015.
- 토머스 리코나, *Educating for Character*, 박장호·추병완 옮김, 『인격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백의, 2002.
- Thomas Lickona, *Character Matters*, 유병열·서강식·김태훈·김향인 공 역, 파주: 양서원, 2006.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한국교육학회,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1998.
-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8.
- 홍경자,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2004.
- 홍순정 외, 『전생애 인성교육』, 파주: 양서원, 2013.

원고접수일: 2015년 11월 16일 심사일: 2015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1일
연구자소개: 문선영

① 전공: 신학 / 소속: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신종교

③ 주요논저: 「어머니 메시아에 관한 연구-통일교의 메시아 이해를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안시일(安侍日) 연구」, 「통일교 여성 이해와 그 현대적 함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음식」

④ E-mail: tcmsy@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Activating th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Religion Educ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Moon, Sun-Young

Sun Moon University

The Korean educational circle is required to study on which relationship the school curriculum and the character education can have than ever due to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In this regard, the correlation between one of the elective curricula of liberal arts, ‘the science of religion’, according to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and the character education is needed to be reviewed. Thus this study intends to find how ‘the religion education as the liberal education’ perform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hereinafter called FFWPU) is connected to the character education and can be activated.

The core of the curriculum contents, in which the religion educ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of FFWPU and the character education are connected, is related to the lessons in the universal moral level sought for by religion. The religion educ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of FFWPU emphasizes the aspect that a student should throw away his/her selfish inclination and be seeking for the desirable relationship with others through the moral life and the practice of the life that cares for others. Further, such religion education makes students also learn the attitudes that consider and respect multiple religions through understanding various religions.

This study as the measure for activating th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religion education for the middle and high schools of FFWPU suggested; first, since the religion educ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of FFWPU is performed within the range of the curriculum of ‘the science of religion’ at the national level, the overall review of the curriculum of ‘the science of religion’ is inevitable. Second,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ligion education clas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level that endows an opportunity of self-examination to students through using various character education-related methods and materials. However, it is considere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activating of th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religion education as the liberal education’ has the limitation, in that the curriculum of ‘the science of religion’ is not regarded as the same to the curriculum of the moral education.

Key words: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Unification Church, Religion Education, Character, Character Education